

# “슬기로울 전공의, 실제 성격 똑 닮았죠”



중영 tvN 드라마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생활’ 고윤정

“한번 꽃히면 모든 것을 쏟아붓는 모습이 특히 비슷하고, 정이 많은 것도 닮았어요. 다른 점은, 제가 이영이보다는 사회생활을 좀 잘 하지 않을 까요? (웃음)”

tvN 드라마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생활’ (이하 ‘언슬전’)의 주인공 오이영(고윤정 분)은 영혼 없는 ‘아, 그렇구나’를 습관처럼 입에 달고 살지만, 호감 있는 남자 앞에서 눈빛부터 달라진다.

철벽을 치는 상대방 앞에서도 불도저처럼 돌직구로 데이트 신청을 하고, 먼저 덱싱 손을 잡아버리는가 하면, 끊임없이 주변을 맴돌며 담백하게, 때로는 능글맞게 호감을 표현한다.

‘언슬전’ 중영을 앞두고 최근 서울 강남구 한 카페에서 만난 고윤정은 “오이영은 제가 지금까지 연기한 캐릭터 중 가장 저와 닮은 구석이 많은 것 같다”고 활짝 웃어 보였다.

그는 ‘캐스팅이 확정되고 난 뒤에 작가님이 각 배우의 특징을 참고해서 캐릭터를 만들어주셨다’며 “비슷한 면이 많은 캐릭터라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실제 성격도 녹여내면서 촬영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언슬전’은 의대 교수들의 이야기를 담은 tvN 인기 드라마 ‘슬기로울 의사생활’의 배경·인물 등 주요 설정을 확장해 아직 서투르고 풋풋한 1년 차 레지던트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스펀오프 시리즈다.

고윤정은 “저도 ‘슬기로울 의사생활’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특별출연으로 와주신 선배님들이 연기하는 걸 보면 마치 TV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웃어 보였다.

시청률 3.7%→7.5% 수직 상승  
접사돈 로맨스 화제…시청률 전인  
“한번 꽃히면 모든 것 보는 성향  
닮은 캐릭터라 아이디어 많이 내”  
차기작 넷플릭스 시리즈 곧 공개

그러면서 “전작의 인기에 대한 부담감은 딱히 없었지만, 이렇게 분량이 큰 역할을 맡아본 건 처음이라 어느 정도 걱정은 됐었다. 무엇보다 책임감을 많이 배운 현상이었다”고 강조했다.

고윤정이 연기한 오이영은 빛 오천만원을 갚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병원으로 돌아온 산부인과 레지던트 1년 차다. 졸부 집 늦둥이로 태어나 호화스러운 유년기를 거쳤고, 학창 시절에도 늘 1등을 도맡아온 인물로, 인턴까지 마친 대학 병원을 관두고 나왔을 정도로 여유가 넘치고 매사에 심드렁하다.

고윤정은 “캐릭터의 설정 자체가 쉽게 공감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초반에 성장 가능성도 없이 보이는 모습 덕분에 오이영이 한 단계씩 성장하는 모습이 오히려 더 극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투르고, 부족하고, 모자란 모습을 보이면서도 중간중간에 살짝씩 비치는 인간적인 면들로 이 캐릭터에 정을 붙이게 만들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언슬전’은 첫 회 시청률 3.7%로 출발해 매주 상승세를 그리며 10회에서 자체 최고 시청률 7.5%(17일 기준)를 기록했다. 특히 오이영과, 그의 사돈인 산부인과 레지던트 4년 차 구도원(정준원)의 로맨스가 큰 화제를 끌며 시청률을 견인했다.

고윤정은 “저희 로맨스가 화제가 될 줄은 아무도 예상 못 했다”며 “감독님도, 작가님도, 동기도 모두가 당황스러워했다”고 웃음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구도원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너무 이상적인 캐릭터기 때문에 시청자 반응이 납득이 안 가는 것은 아닌데, 그냥 모두가 신기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9년 드라마 ‘사이코메트리 그녀석’으로 데뷔한 고윤정은 넷플릭스 시리즈 ‘보건의사 안은영’, ‘스위트홈’, JTBC ‘로스쿨’, tvN ‘환혼’ 시리즈, 디즈니+ ‘무빙’ 등에 출연해왔다.

최근 촬영을 마친 넷플릭스 새 시리즈 ‘이 사랑 통역이 되나오’도 공개를 앞두고 있다. 당찬 매력의 톱스타 차무희 역할을 맡아 김선호와 로맨스 호흡을 맞춘다.

고윤정은 “오이영과 구도원의 로맨스가 워낙 큰 관심을 받아서 오히려 차기작에서 넘어야 할 큰 산이 생긴 기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언슬전’에서의 캐릭터들은 현실에서 불법한 캐릭터처럼 보인다면, ‘이 사랑 통역 되나오?’는 아주 화려한 로맨스기 때문에 판타지에 오히려 가깝다”며 “이제 느낌이 다른 작품이기 때문에 편하게 봐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 제 70회 호남예술제 입상자 - 성악

〈심사위원〉  
임해철 (호남신학대 명예교수)  
박미애 (전, 광주대 교수)  
김미옥 (전, 광주대 교수)  
홍승연 (광주교대 교수)  
이정은 (광주음협 회장)

### ◇ 고등부 1,2학년

▲ 금상  
10 김예은 (광주예술고2)  
▲ 은상  
1 박예찬 (광주예술고2)  
6 박세민 (전남예술고2)  
▲ 동상  
2 박가현 (송원여자고2)  
7 황현성 (광주예술고2)  
12 이하영 (전주예술고2)

### ◇ 고등부 3학년

▲ 최고상  
6 추서연 (광주예술고3)  
▲ 금상  
8 임준희 (국제고3)

▲ 은상  
11 김유현 (순천매산고3)  
▲ 동상  
3 이하미 (광주예술고3)  
4 박지효 (2007년생)  
5 김우석 (전남고3)  
9 정시진 (광주제일고3)

### ◇ 초등부 3,4학년

▲ 최고상  
35 한재연 (살레시오초4)  
▲ 금상  
21 김우진 (광주송원초4)  
43 박재이 (광주삼육초3)  
▲ 은상  
4 윤하주 (조봉초4)  
6 노이서 (살레시오초4)  
13 손태린 (무안행복초3)  
15 박은재 (불로초4)  
17 박가을 (무안행복초3)  
23 이유주 (대자초4)  
25 함라엘 (무안행복초3)  
27 여소민 (광주효동초3)

37 양하윤 (불로초4)  
38 장민술 (광주삼육초3)  
39 김새하 (응두초3)  
46 김소희 (큰별초4)  
▲ 동상  
1 이민후 (광주송원초3)  
3 안유주 (큰별초3)  
5 최시우 (은빛초3)  
12 이소미 (광주운암초3)  
16 윤서원 (살레시오초3)  
18 문예린 (수완초3)  
19 최예슬 (남악초3)  
20 김마루한 (수완초4)  
24 박다인 (광주교대광주부설초4)  
34 조이안 (불로초3)  
40 박주경 (산정초3)  
44 강재리 (살레시오초3)  
47 정하진 (광주송원초3)

※ 장려상 입상자는 호남예술제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 전 세계 흔드는 BTS 진 ‘에코’

아이튠즈 톱 앨범 63개국 1위…뷔 ‘프렌즈’ 5억 스트리밍

그룹 방탄소년단(BTS) 진(사진)의 두 번째 미니앨범 ‘에코’(Echo)가 발매와 동시에 글로벌 팬들의 호응을 얻었다.

최근 소속사 빅히트 뮤직에 따르면 ‘에코’는 발매일 전날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63개국 아이튠즈 ‘톱 앨범’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 앨범은 독일·브라질·영국·일본·프랑스 등지에서 정상에 올랐다.

‘에코’는 발매 당일 ‘월드와이드 아이튠즈 앨범’과 ‘유러피안 아이튠즈 앨범’ 차트에서도 1위를 기록했다.

신보 타이틀곡 ‘돈트 세이 유 러브 미’(Don't Say You Love Me)는 프랑스·일본 등 61개국 아이튠즈 ‘톱 송’ 차트 정상을 찍었다. ‘월드와이드 아이튠즈 송’과 ‘유러피안 아이튠즈 송’ 차트에서도 1위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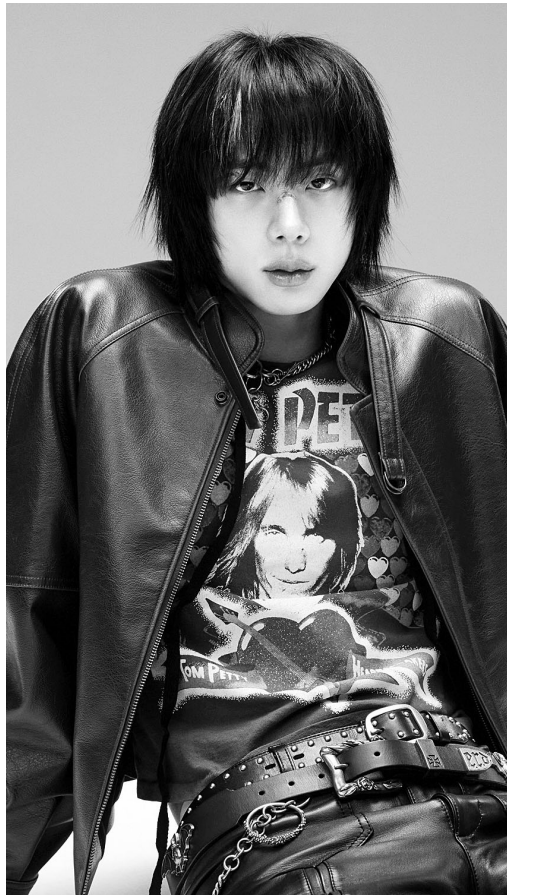
진은 미니 2집 ‘에코’에 삶의 다양한 순간들이 각기 다른 모습의 울림처럼 퍼져나가는 모습을 그렸다. 진은 17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앤더슨씨에서 신곡 무대를 최초 공개한다.

팀 동료 뷔는 디지털 싱글 ‘프렌즈’(FRIENDS)가 글로벌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누적 재생수 5억회를 넘겼다.

스포티파이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발표된 이 노래는 지난 15일 누적 재생수 5억회를 달성했다.

‘프렌즈’는 오랜 시간 친구로 지내왔지만, 이제는 친구 사이를 끝내고 그 이상의 관계로 나아가자는 마음을 담은 곡이다.

이 노래는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에 진입하고 영국 오픈셜 싱글차트 ‘톱 100’ 13위



를 차지하는 등 인기를 끌었다. 뷔는 스포티파이에서 10억회 스트리밍을 달성한 ‘러브 미 어게인’(Love Me Again)을 비롯해 총 12개의 역대 스트리밍 솔로곡을 보유하고 있다.

/연합뉴스

## ‘야당’·‘승부’가 살린 한국 영화

3개월 만에 관객 수 반등…전년 동월 대비로는 41.8% 하락

황병국 감독의 ‘야당’과 김형주 감독의 ‘승부’가 흥행한 지난달 한국 영화 관객 수와 매출액이 나란히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가 16일 발표한 2025년 4월 한국 영화산업 결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 영화 관객 수는 383만명, 매출액은 361억원으로 집계됐다.

3월과 비교하면 관객 수는 129.6%(216만명), 매출액은 129.8%(204억원) 증가한 수치다. 올해

1~3월 관객 수·매출액이 꾸준히 감소했던 한국 영화는 3개월 만에 회복세로 돌아섰다.

영진위는 ‘야당’과 ‘승부’의 흥행 덕에 한국 영화가 숨통을 트게 됐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6일 개봉한 ‘야당’은 4월 한 달 동안 184만명을, 지난 3월 26일 개봉한 ‘승부’는 212만명을 각각 동원했다.

다만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한국 영화 관객 수는 41.8%(390만명), 매출액은 43.1%(388억

원) 줄었다.

‘야당’과 ‘승부’가 선방했지만, 지난해 4월 개봉해 천만 영화가 된 ‘범죄도시 4’ 파급력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게 영진위의 설명이다.

외국 영화 역시 전년 동월 대비 부진하며 관객 수는 41.4%(114만명) 감소한 161만명을, 매출액은 42.8%(113억원) 하락한 151억원을 기록했다.

‘마인크래프트 무비’, ‘썬더볼츠\*’ 등 할리우드 대작이 모두 4월 말에 개봉하면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한국 영화와 외국 영화 시장이 모두 침체하면서 지난달 전체 관객 수와 매출액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된 2022년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체 관객 수는 544만명, 매출액은 512억원이다.

/연합뉴스

www.kwangshin.ac.kr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sup>+</sup>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sup>+</sup>입니다.

학부 신학과 한국어교육학과 유아교육과 복지상담융합학부 음악학부  
대학원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

입학문의 >>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For the Lord  
To the World  
주님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